

무인 자율주행차,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!

-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,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
-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확산을 위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 고도화도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(스타트업)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운행을 허가(임시운행허가*)한다.

*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(자동차관리법 제27조)로,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·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운행을 허가

○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(최고속도 50km/h)*이다.

*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,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

☞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(최고속도 10km/h ↓), 특수목적형(청소차 등)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

- 비상자동제동,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·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, 케이-시티(K-City)*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.

* 자율차 맞춤형 시험·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(경기 화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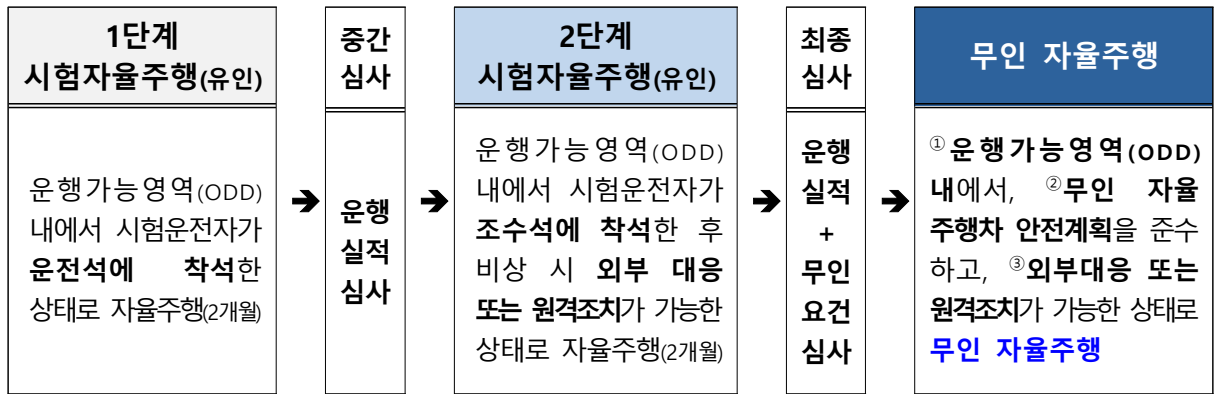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*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.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,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**해진다.

*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영역(도로구간, 날씨, 시간 등)으로, 검증 이후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시험자율주행이 실시된 구역에서 진행

**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, 중국,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

-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,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·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.
-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**운행실적**(사고 발생여부, 제어권 전환빈도 등)과 **무인 자율주행요건**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.

<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·심사 절차 >

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“’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하여 기술·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,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روی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호 (044-201-3847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주 (044-201-385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

무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


□ 차량 정보

	주요센서	라이다, 레이더, 카메라, GPS 등
	기타	시험용 운행담보특약 등 보험 가입

□ 실증 계획

운행속도	50km/h 이내
운행시간	10:00 ~ 17:00 및 20:00 ~ 07:00 ※ 교통혼잡시간 대 운행제외
운행지역	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.2km 순환구간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주행거리 약 3.2km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월드컵로 약 1.1km 직선 주행 구간 ② 가양대로 약 0.6km 직선 주행 구간 ③ 월드컵북로 약 0.7km 직선 주행 구간 ④ 회전교차로 포함 월드컵북로 약 0.1km, 상암산로1길 약 0.4km 주행 구간 ⑤ 상암산로 약 0.3km 직선 주행 구간 <p>※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하여 실증구역 선정</p>

□ 안전성 확보 방안

구분	내용	
시험운전자, 안전관리자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험운전자(운전석/조수석): 자율주행모드 진입 요청, 차량 주변상태 모니터링,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정지 수행 등 ■ 안전관리자(원격): 자율주행모드 진입 승인, 자율차 1:1 상시 모니터링, 이슈대응·비상정차 등 원격 지원 수행 	
비상정지 수단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차량 내부 및 외관에 비상정지 버튼 설치 ※ 특히 조수석의 시험운전자는 비상정지 버튼 상시 소지 ■ 원격관제시스템에도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	 
통신단절, 사고발생 시 안전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율주행 중 차량-관제센터 간 2초 이상 통신 단절·지연 즉시 MRM(위험최소화운행) 실행 ■ 사고발생 혹은 충돌감지 시 즉시 관제센터에 사고알림 전송 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율차의 운행구간 및 시간, 주의할 점(외부 비상정지버튼 위치, 위험행위 등)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실증구역에 배치 	